# 세속대학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김수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가령 만물의 기원과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만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된다고 믿는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이와는 다른 어떤 입장을 믿는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때, 세계관의 차이는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를 만드는데, 교육의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을 사람을 기르는 일 혹은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았을 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좋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보는 입장과,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기계이며 좋은 삶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라고 입장에서의 교육이 같을 수 없다. 만약 기독교인이 교육을 기술을 익히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인간됨이나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리고 참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인해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수와 기독교 대학생들의 교육의 장은 세속대학이다. 세속대학의 특징은 공적인 영역, 즉 대학교육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관점을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세상의 실재를 배워감에 있어,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 교수와 기독교인 대학생은 어떻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대학수준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적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세속대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세속대학 속에서 기독교적 교육은 어떻게, 얼마나 가능한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대학수준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이라함은 기독교적인 조망을 가지고 삶의 모든 면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세속대학의 특징은 자연주의(과학주의), 상대주의, 경제적 효용의 강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세속대학에서 가능한 기독교적 교육으로는 1) 세계관적인 질문 던지기, 2) 질문에 열린 공동체 형성하기, 3) 삶을 위한 교육 강조하기 등이 있다.